

역사적 전개 과정을 통해 바라본 ‘마리아의 중재’ 관념의 형성과 발전

지재구*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신학과 조교수

들어가는 말

1. 중개자와 중재자에 대한 개념 이해
 2. ‘마리아의 중재’ 관념의 시작: 성경에 암시된 ‘마리아의 중재’ 관념
 - 2.1. 수태고지와 마리아
 - 2.2. 계약의 궤와 마리아
 - 2.3. 시메온과 마리아
 - 2.4. 카나의 혼인 잔치와 마리아
 - 2.5. 그리스도 십자가 곁의 마리아
 3. ‘마리아의 중재’ 관념의 변화와 발전: 교부들과 신학자들의 마리아론
 4. 근대 이후의 양상: 제 2차 바티칸 공의회가 이룬 조화와 균형
- 나가는 말

* 이 논문은 2023년 가톨릭대학 성신교정 연구 지원비를 지원받아 수행된 연구이다.

들어가는 말

점점 더 세속주의적이고 무신론적인 세계관으로 나아가는 현대 세계에서 여러 종교는 나름대로 큰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러한 시기, 제 2차 바티칸 공의회가 종교 간 대화를 통한 다른 종교 신자들과의 상호 이해와 상호 존중의 필요성에 역점을 두었던 것¹⁾은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비그리스도 종교(Non-Christian Religions)와의 대화에만 집중한 나머지 가톨릭 신앙의 토대를 등한시하는 것은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가톨릭 교회 내에서 전통적 믿음이 심각하게 약화되는 한 가지 이유일 수도 있다. 가톨릭 신앙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중요한 한 가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성모 마리아에 대한 대중적 헌신이 감소하는 현상 역시 어쩌면 이러한 맥락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시힐러베익스(Edward Schillebeeckx)와 할케스(Catharina Halkes)는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의 세대에게 마리아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고까지 표현한 바 있다. 실제로 마리아의 동정성이나 모성과 같은 전통적 관념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인식되곤 하며 그 결과 신앙에 성실한 사람들에게조차도 그녀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마리아의 전통적 이미지로부터 완전히 멀어지는 것은 마치 목욕물과 함께 아기를 버리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시힐러베익스와 할케스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를 통해 마리아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고 본다. 과거의 전통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지속하고 마리아의 다양한 이미지를 오늘날의 정신에 맞게 번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이다.²⁾

이 논문은 마리아에 대한 시힐러베익스와 할케스의 이와 같은 관점에 동의하면서, 특별히 ‘마리아의 중재’ 관념에 초점을 맞추어 그 신학적 이해를 재고해 보고자 한다. 마리아의 중재 가능성에 대한 신학적 이해는 그리스도론을 옹호하는 이들과 마리아의 존재 의미를 확대 해석하려는 이들 간에 논란과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의식하면서 이 연구는 현대에 이르기까지 ‘마리아의 중재’ 관념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그 역사적 과정을 간략하게나마 고찰해 보고자 한다. 즉, 『성경』 안에 내재한 ‘마리아의 중재’ 관념을 살펴보고, 이 관념이 중세와 근현대를 지나며 어떻게 진화, 발전

1) The Second Vatican Council, “Declaration on the Relationship of the Church to Non-Christian Religions, (*Nostra Aetate*). n.1-5, 1965.

2) Edward Schillebeeckx and Catharina Halkes, *Mary Yesterday, Today, Tomorrow*, (London: SCM Press, 1993), 1.

되었는지를 역사적으로 고찰해 볼 것이다. 이 연구는 ‘마리아의 중재’ 개념이 단순히 시대적 산물이 아니라 가톨릭교회의 축적된 전통과 함께 발전한 신앙의 유산이고 교부들의 신학적 증언을 통해 승화되고 깊어졌으며, 제 2차 바티칸 공의회가 확증한 것임을 입증하는 학문적 시도라 할 수 있겠다.

1. 중개자와 중재자³⁾에 대한 개념 이해

이 논문이 다루는 ‘중재’(mediation) 개념과 관련하여, 사도 바오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하느님께서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히브 1,1-2). 그러므로 이러한 하느님의 행위는 그리스도교 경륜의 새롭고 결정적인 언약이시기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중개자이시며 모든 계시의 충만”⁴⁾이다. 이 중재 개념에 기반을 두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두 가지 기도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첫 번째는 “그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다. 첫 번째 방법은 오직 하느님께만 기도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느님의 은혜와 은총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방법으로 천사나 성인을 통해 기도하는 것이다. 하느님께서 그들을 통한 우리의 간구를 아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도와 공로를 통해 우리의 기도가 효력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는 마치 복되신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라고 간청하지만, 성인들에게도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라고 청하는 것과 같다.⁵⁾ 이러한 의미에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마리아의 중재 기도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현대의 교황들 또한 이 중재 개념에 중요성을 부여하셨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아버지께로 가는 여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중개와 마리아의 중재를 어떻게 이해해

3) 1996년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에 속한 ‘용어위원회’는 ‘Mediator’라는 단어를 ‘중개자’로 번역하였다. 또한 제 2차 바티칸 공의회는 중재자인 마리아를 중재자(Mediatrix)로 번역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그리스도를 지칭할 때는 ‘중개자’로, 마리아는 ‘중재자’로 칭한다.

4) *Catechism of the Catholic Church*, n. 65-67. III, Christ Jesus, “Mediator and Fullness of All Revelation.”

5) Thomas Aquinas, *Summa Theologiae*, Q 83, Article 4, a. 1.

야 하는지를 명확히 밝히었다. 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길ियो, 진리요, 생명”(요한 14,6)이시며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개자”이시며(1티모 2,5 참조)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에 참여하고 전적으로 그 봉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제 2차 바티칸 공의회(Lumen Gentium(「인류의 빛」)을 인용하면서, 마리아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과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한다. 즉, 인간의 어머니로서 마리아의 역할은 그리스도의 이 독특한 중개를 가리거나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능력을 드러내 주는 것이다.⁶⁾ 교황은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중개와 별개로, 또는 그리스도의 중개와 나란히 교회 생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⁷⁾ 교황 베네딕토 16세 또한 2013년 “General Audience”에서 바티칸 공의회(Lumen Gentium)의 문헌을 인용해 예수 그리스도의 중개에 대해 언급하신 바 있다. 그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며 그를 통해 하느님의 계시가 완성된다고 말한다.⁸⁾ 또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로마 신학교를 방문하셨을 때 사제직의 위대함을 설명하면서, 사제 생활은 하느님과 백성 사이의 참된 중개자로서의 삶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날 그분은 “사제에게 온전한 민족을 주시는 예수님의 논리는 무엇인가?”라고 묻고, 그것이 “중개자의 논리”라고 대답하신다. 교황은 “중개자(mediator)와 중개인(intermediary)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신다. 즉, 중개인은 집을 사고 파는 거래 중 수고의 대가로 돈을 받는 것과 같다. 이는 절대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거래이다. 반면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중개자는 하느님과 인간을 결합시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분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다른 사람의 구원을 대가로 자신의 생명, 즉 자신의 전부를 바치신다. 교황은 또한, “본당 신부”는 “양 떼를 하나로 모으고,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데” 헌신하는 삶일 뿐이라고 말한다.⁹⁾ 교황은 사제들이 하느님 백성을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 주시는 은총의 중개자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신자들에게 헌신적으로 투신할 것을 당부하기 위해 하신 말씀이었다.

현대 신학자, 에이든 니콜스(Aidan Nichols)는 마리아의 중재 행위를 객관적 또는 보편적 관점과 주관적 관점으로 나누어 본다. 보편적인 관점에서, 그것은 「루카복음」 1장

6) *Lumen Gentium*, n. 60.

7) John Paul II, “General Audience,” 12 January, 2000.

8) Benedict XVI, “General Audience,” 16 January, 2013.

9) Francis, “Mediator or intermediaries,” 9 December, 2016.

26-38절과 「요한복음」 19장 25-27절에서 볼 수 있듯이 인류 전체를 위해 구성된 구속 행위이다. 그러나 주관적 중재는 마리아의 중재를 통해 작용하고 인간의 이익에 국한되는 호의와 관련된 인간 주체에 대한 적용이다.¹⁰⁾ 이러한 관점에서 니콜스는 마리아를 '은총의 중재자'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본다.

이러한 중재 개념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고 아래의 장들에서는 『성경』에서부터 제 2차 바티칸 공의회까지 모든 은총의 중재자로서의 마리아, 즉 '마리아의 중재'라는 관념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변화하고 발전하였는지를 살펴보겠다.

2. '마리아의 중재' 관념의 시작: 성경에 암시된 '마리아의 중재' 관념

가톨릭교회의 전통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유일한 중개자이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앙인들이 마리아에 대한 신심과 신뢰를 바탕으로 그녀에게 기도의 도움을 청한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그리스도께 전달해 주는 중재자로서 마리아를 받아들이고 싶어 하는 것이다. 가톨릭 신자들은 마리아에게 기도할 때, 청원기도(intercession)와 중재(mediation)라는 용어를 종종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그러나 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청원기도는 마리아가 죄인을 대신하여 하느님께 직접 도움을 청하는 기도이다. 그러나 '마리아의 중재'라는 관념은 단순한 청원기도의 개념과는 다르다. 마리아는 하느님 은총의 협력자로서 선택된 것이지 인류에게 하느님의 직접적인 은총의 선물을 전달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¹¹⁾

이러한 '마리아의 중재' 관념을 대략적으로나마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기 위해 여기에서는 먼저 『성경』이 마리아를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성경』은 '마리아의 중재' 관념을 논할 때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매우 중요한 원천으로서, 『성경』에서 복되신 성모 마리아는 다른 어떤 여자에게도 주어지지 않은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우선 마리아는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와 마지막 책인 「요한묵시록」에서 예언적으로 나타난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께 원죄로서의 죄를 지은 후, 하느님

10) Aidan Nichols, OP, *There is no rose, The Mariology of the Catholic Church*, (Minneapolis : Fortress Press, 2015), 111-116.

11) Brian K. Reynolds, *Gateway to Heaven—Marian Doctrine and Devotion Image and Typology in the Patristic and Medieval Periods, Vol. 1*, (New York: New City Press, 2012), 152-153.

은 뱀에게 “내가 너와 여자의 후손 사이에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네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도리어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히리라.”(창세 3,15)고 말씀하셨다.¹²⁾ 이 창세기 3장 15절은 마리아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예언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마디로, 『신약 성경』이 묘사하는 구원 역사의 본질적인 시점들에서 마리아가 “여자”로서 지칭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 즉 창세기 3장 15절은 마리아와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인간의 죄로 타락한 이후에도 하느님은 인류를 버리지 않으시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구원자를 약속하셨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여자”로 예언되는 마리아는 이어지는 『신약 성경』에서 하느님의 선물에 대해 잠재적인 순수한 수용과 개방적인 자세로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낸다.¹³⁾

『신약 성경』에서 마태오 복음서의 첫 두 장과 루카 복음서의 첫 두 장은 그리스도의 탄생과 유년기에 대한 풍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복되신 어머니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에서 그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그려지고 있다. 이 두 복음서는 대천사 가브리엘이 하늘로부터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마리아와 요셉에게 나타난 사건, 마리아의 엘리사벳과 즈가리야 방문, 예수의 탄생, 목동과 동방 박사의 방문, 이집트로의 피난, 나사렛에서의 사생활, 어린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한 그의 부모가 예수를 잃어버렸다가 성전에서 찾는 사건 등을 다루고 있다. 이는 구원 역사의 첫 단계에서부터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역할은 그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증거를 보여 준다.¹⁴⁾ 다음에서 몇 가지 예를 살펴보겠다.

2.1. 수태고지와 마리아

수태고지 당시 가브리엘 대천사는 하느님에 의해 나자렛에 있는 마리아에게 보내졌다. 프란시스 아린즈(Francis Cardinal Arinze) 추기경에 의하면, 이 사건은 하느님이신 구세주를 드러내는 사건이다. 또한, 이 사건에서 당신 아드님의 구원 사업에 협력하는 마리아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 루카 복음 1장 30절에서 대천사 가브리엘은

12) Francis Arinze, *Marian Veneration*, (San Francisco: Ignatius Press, 2017), 17.

13) E. Schillebeeckx, O.P. *Mary, Mother of the Redemption: The religious bases of the mystery of Mary*, (London and New York: Sheed and Ward, 1964), 72.

14) Ibid., 18-19.

성모 마리아를 안심시키며 말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 너는 하느님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또한 “성령이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나실 아기는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루카 1,33) 나아가 천사는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녀의 사촌 엘리사벳이 노령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임신 6개월이 되었음을 알려 준다. 이 사건에 대해 프란시스 아린즈 추기경은 성 베르나르두스(St. Bernard)의 말을 인용하여 전 세계가 마리아의 동의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한다. 이에 믿음과 순종으로 나사렛의 동정녀는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러자 천사는 그녀에게서 떠났다(루카 1, 26-38 참조). 프란시스 아린즈 추기경은 바로 그 순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한다. 즉, 지극히 복되신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은 항상 하느님이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태중에서 인성을 취하셨다. 이것은 우리 구원의 역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다. 추기경은 마리아의 역할과 지위가 여기에서 드러난다고 본다. 즉, “하느님께서 그녀에게 부여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역할은 분명하다. 그녀는 사람이 되신 하느님 아들의 어머니이다.”¹⁵⁾

2.2. 계약의 궤와 마리아

에이든 니콜스(Aidan Nichols)가 지적하는 바, 성모 호칭 기도(Litany of Loreto)에서 마리아는 “계약의 궤”로서 칭송을 받는다고 말한다. 계약의 궤는 사막의 장막이자 첫 번째 성전의 지성소였으며 해롯 대왕이 재건한 두 번째 성전에도 여전히 존재하였다.¹⁶⁾ 마리아가 “계약의 궤”로서 칭송받은 것은 그만큼 마리아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의미한다 할 수 있다. 계약의 궤는 다윗 왕 당시 유다 바알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졌는데, 그 사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을 머물렀다.(사무엘하 6 참조) 계약의 궤가 석 달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렀던 것처럼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집에서 석 달 동안 머물렀다. 그리

15) Francis Arinze, 19-20.

16) Aidan Nichols, OP, *There is no rose, The Mariology of the Catholic Church*,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5), 15.

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머물렀던 계약의 례가 이후 예루살렘으로 옮겨진 것처럼 마리아는 곧 태어날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루카, 2,39-45) 에이든 니콜스는 루카 복음사가가 이러한 이야기를 마리아의 업적으로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다고 말한다.¹⁷⁾ 이러한 마리아의 엘리사벳 방문은 그녀의 신분을 드러내는 사건이었다 말할 수 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고 마리아의 엘리사벳 방문은 계약의 례의 이동 행위에 비견될 수 있다. 이 사건은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의 신분이 구세주의 어머니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는 마리아의 신분이 구원의 중재자 역할의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이는 하나님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의 선의에 따른 것이다.

2.3. 시메온과 마리아

모세 율법(출애 13,2,12 참조)에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봉헌하는 일은 아기 예수가 태어난 지 40일 만에 거행되었다. 가난했던 요셉과 마리아는 어린 비둘기 두 마리를 선물로 봉헌했다. 의롭고 독실한 시메온은 아기를 품에 안고 메시아를 직접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후 구원 역사에서 마리아가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다.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뚫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 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루카 2,35). 그리고 이 예언의 성취는 성모 마리아가 십자가 아래 서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아들을 보았을 때 절정에 달했다.¹⁸⁾ 에이든 니콜스는 여기에서 “당신의 영혼”은 바로 이스라엘 전체라고 말한다. 마리아는 이제 이스라엘의 대표자이다. 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운명을 대표하고 세상에 희망을 구현하는 고통을 지니신 슬픔의 여인이 되는 것이다.¹⁹⁾ 따라서 마리아는 이스라엘 백성 뿐 아니라 모든 믿는 이들의 고통의 눈물을 닦아줄 대표적인 여인이라 할 수 있다.

2.4. 카나의 혼인 잔치와 마리아

카나의 혼인 잔치 이야기는 예수 공생활의 출발선에서 성모 마리아의 중요한 역할을 보여준다. 요한복음 사가는 독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카나에

17) Ibid.

18) Francis Arinze, 23.

19) Aidan Nichols, OP, 16.

서 혼인 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갈릴리 카나의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마리아가 그것을 보고 자기 아들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알리니, 예수님은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다.(요한, 2, 3-4)

이 이야기에서 겉으로 드러난 예수님의 이 같은 냉담한 대답은 그분이 아직 기적을 행할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여기서 마리아는 구원의 역사를 가져오는 새로운 여자로 암시되고 있다. 즉 그녀는 독특한 역할을 지니고 있는 새 하와로 암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 매력적인 이야기는 구원 역사에 있어서 성모 마리아의 역할을 암시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여기에서 마리아는 사람들의 필요에 주의를 기울이는 이로 표현되는데, 마리아의 이러한 면모는 중재의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카나의 혼인 잔치는 마리아의 중재를 통해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구원이라는 풍성한 은총의 표현으로도 읽을 수 있다. 이렇게 카나의 혼인 잔치 사건은 마리아에 대한 우리 신심의 확고한 성경적 기초를 강하게 확인시켜 주고 있다.²⁰⁾

2.5. 그리스도 십자가 곁의 마리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 예수님은 고통 중에 당신이 사랑하던 제자에게 “‘이분이 네 어머니다’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요한 19, 26-27).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말씀은 마리아를 사도들의 어머니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어머니로 보게 한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하신 이 말씀에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한다면, 십자가 아래 제자 요한은 이제 혼자가 아니다. 그는 모든 인류, 특히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대표하며, 따라서 마리아는 모든 인류의 어머니이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인류를 위한 “마리아의 모성이 이미 윤곽이 그려져 있었다면 이제는 분명히 진술되고 확립되었다.”²¹⁾라고 말씀하신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마리아의 중재’라는 관념이 신약 성경이 집필되던 시

20) Francis Arinze, 24-26.

21) John Paul II, *Redemptoris Mater*, 1987, 23.

기부터 이미 교회 내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관념이 신약 성경에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위의 예들이 보여주듯, 신약 성경에는 암시적으로 ‘마리아의 중재’라는 관념이 드러나고 있다. 브랜트 피트레(Brant Pitre)는, 신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새로운 이브인 마리아가 단순한 인간 피조물을 위해 하느님의 은총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최고의 모범을 보여주었다고 말한다. 마리아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 이단과 이브가 범한 타락의 영향력을 없애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코린 5,17 참조). 또한, 그녀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죄 없이 사셨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은혜로 우리도 부활한 은총으로 죄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음을 이해하도록 우리를 도와준다.²²⁾ 정리하자면, 신약 성경은 여자로써의 마리아의 지위와 예수의 어머니로써의 마리아의 역할을 서술함으로써 ‘마리아의 중재’ 관념을 묘사적으로, 혹은 암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3. ‘마리아의 중재’ 관념의 변화와 발전: 교부들과 신학자들의 마리아론

신약 성경이 집필된 이후, 시간이 흐르고 교회가 성장하면서 ‘마리아의 중재’ 관념 또한 점점 변화하며 발전한다. 여기에서는 신약 성경 형성 이후 ‘마리아의 중재’ 관념이 점점 구체화되는 모습을 시대 순서에 따라 몇몇 교부들과 신학자들의 마리아론을 통해 살펴해보겠다.

동방교회의 교부인 순교자 유스티노(Justin, 100/10-165)는 마리아의 첫 번째 옹호자였다. 그는 사도 바오로의 말씀인 「로마서」 5장 12-21절을 인용하여 아담을 그리스도와 하와를 마리아와 비교했다. 그는 천사 가브리엘의 말에 대한 마리아의 반응을 이브가 사탄의 울무에 빠진 창세기 3장과 반대되는 것으로 보았다. 하와가 하느님께 불순종하고 사탄의 말을 들음으로써 세상에 죽음을 가져왔다면, 마리아의 응답은 세상의 속박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 주었다. 이브의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여 인류에게 하느님의 은총을 새롭게 회복시킨 것은 그녀의 자유로운 동의였다. 결국 하와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면, 하느님의 말씀과 진리가 마리아를 통하여 새 생명이 세상에 들어왔으니 마리아는 살아 있는 하와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²³⁾

22) Brant Pitre, *Jesus and the Jewish Roots of Mary*, (New York: Image, 2018), 59.

또한, 3세기 초 교부인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겐(Origen of Alexandria c.185-254)은 십자가 곁에 서 있는 마리아를 묘사했다. 오리겐은 이것을 칼이 마리아의 영혼을 꿰뚫을 것이라는 시므온의 예언, 즉 루카복음 2장 35절의 성취로 보았다.²⁴⁾

동방 교회와 달리 서방 교회에서는 마리아에 대한 교부들의 관심이 높지 않았다. 그럼에도 몇몇 교부들은 구원의 역사 안에서 마리아가 차지하는 역할에 주의를 기울였다. 예를 들어, 암브로시우스(Ambrose, 339-397)는 그리스도의 수난을 바라보았던 마리아 자신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표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마리아는 사도들과 함께 도망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함께 있기를 원했다. 마리아의 역할에 주목한 암브로시우스는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에 대한 극심한 고통을 목격하는 마리아의 금욕적인 인내를 사도들의 도주와 그녀의 충실함을 대조하여 표현했다.²⁵⁾

반면,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e, 354-430)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마리아의 역할을 강조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총만이 타락한 인간 구원의 중심이며 그만이 유일한 중개자이기 때문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마리아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하와의 후손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회복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그는 구원에서 마리아의 역할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견해가 수세기 동안 지속됨에 따라 마리아는 점차 신학적 관심에서 멀어졌다.²⁶⁾

그러나 중세에 이르면 ‘마리아의 중재’에 대한 시각은 서서히 변모하기 시작한다. 중세 초기, 서방 교회의 마리아에 대한 신심은 확실히 동방의 활기찬 신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갑고 차분했다. 그리스도의 구원 경륜에서 마리아의 역할에 대한 인식은 앞서 언급한 암브로시우스와 아우구스티누스 시대 이후 중세 초기까지 거의 변하지 않았다. 레이놀드(Brian K. Reynolds)는 중세 초 마리아에 대한 대부분의 성직자들의 견해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었고 그들은 교회의 전통에서 물려받은 교부들의 견해에만 만족했다고 본다.²⁷⁾

한편, 서방 교회에서 신자들의 생각은 점차적으로 달라져갔다. 마리아만이 당신의 아

23) Luigi Gambero, *Mary and The Fathers of The Church*, (San Francisco: Ignatius Press, 1999), 45-46.

24) Hilda Graef, *Mary A History of Doctrine and Devotion*, (Indiana: Christian Classic & Norte Dame, 2009), 36.

25) Brian K. Reynolds, 55.

26) Ibid., 264-266.

27) Ibid., 185.

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없으며 그녀를 통해 죄인들이 그리스도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생각이 퍼져다. 마리아는 신자들이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로 인식되었다. 특히 암브로시오(Ambrose, c. 730-784)는 마리아의 자비를 그리스도의 엄격한 정의와 대조했다. 따라서 그는 마리아를 낮은 자들을 돕고, 마음이 상한 자들과 고통 받는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열심인 자들을 위해 간청하는 분으로 묘사했다.²⁸⁾ 또한, 샤르트르의 풀베르(Fulbert of Chartres c. 970-1038) 주교는 이 세상에서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바다의 별이신 마리아께 인도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영혼의 길을 안내하는 중요한 역할 때문에 바다의 별이라고 불린다. 그는 하늘의 복극성이 배를 항구까지 안전하게 운송하는 항해사의 수단인 것처럼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인생의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마리아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믿었다.²⁹⁾ 또한, 동정녀 마리아의 자비에 관해 잘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 있는데, 이는 네아폴리스의 파울루스 부제(Paul of Neapolis, +870)가 마리아의 자비로운 중재에 관한 전설들을 라틴어로 번역한 것이다. 그중 하나는 5세기에 그리스에서 전해졌다는 테오필루스(Theophilus)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는 실리시아 주교의 행정관이었던 테오필루스가 동정녀이신 마리아의 자비와 도움으로 사악한 악마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³⁰⁾

이처럼 서방교회에서 마리아에 대한 신심과 그녀의 중재에 대한 믿음은 새 천년기에 접어들면서 수도원의 발전과 함께 점점 퍼져 나갔다. 하나님의 어머니께 대한 신심의 발전은 거룩한 장소들에 대한 순례뿐 아니라 동정녀에 대한 봉헌들로 이어졌다.

이러한 마리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 인물은 12세기,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두스(Bernard of Clairvaux, 1090-1153)이다. 그는 자비로운 어머니가 아들을 진정시키고 죄 많은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마리아론을 발전시켰다. ‘마리아 의사’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그의 마리아에 대한 가르침은 동시대와 후대에 다른 어떤 교회 학자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별을 쳐다보고 마리아를 부르십시오”(“respice stellam voca Mariam, ‘Look at the Star, invoke Mary!’”)라는 문구를 포함하는 강론³¹⁾

28) Hilda Graef, 128-132.

29) Luigi Gambero, *Mary in the Middle ages-The Blessed Virgin Mary in the Thought of Medieval Latin Theologians*, Thomas Buffer(tr.), (San Francisco: Ignatius Press, 2000), 84.

30) Georges, Gharib, and others, eds., *Testi mariani del primo millennio*, III, (Rome: Citta Nuova, 1988-1991), 817-818.

31) 참조: Hilda Graef, 184-185, “Look at the Star, invoke Mary!”.

은 마리아의 개입과 그 보편적 효과를 잘 드러내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혹의 폭풍이 당신에게 몰아칠 때, 당신이 환난의 바위 위에 내몰리는 것을 볼 때, 별을 쳐다보고 마리아를 부르십시오. 교만이나 증오나 질투의 물결에 시달릴 때, 별을 올려다보십시오. 성모님을 부르십시오. 분노나 탐욕이나 육체의 욕망이 당신 영혼의 작은 그릇을 격렬하게 공격한다면, 별을 바라보고 마리아를 부르십시오[...], 당신은 결코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보호 아래 당신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녀가 당신 앞에서 걷는다면 당신은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면 당신은 목표에 도달할 것입니다.³²⁾

특히 그는 하느님께서 모든 신자들이 마리아를 통해 은혜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마리아의 보편적 중재를 강력히 옹호하였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탄생 축일에 그는 마리아를 운하에 비유하며 중재 은총을 설명하였다. 이 설교에서 그는 마리아의 중재를 땅에 거룩한 물을 가져오는 통로에 비유했다. 그는 ‘물길에 원천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라고 질문한 후, ‘오직 마리아의 헌신과 열정과 기도의 순수함으로 가능하다’고 대답한다. 베르나르두스에 따르면, 마리아가 온 인류를 위한 은혜의 수단이 되기를 원하신 분은 하느님이시다. 그는 하느님께서 모든 선의 충만함을 마리아 안에 두셨고 구원의 은총이 마리아를 통해 흐르게 하셨다고 말한다.³³⁾ 이러한 베르나르두스의 ‘마리아의 중재’에 대한 관점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일 수도 있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협력자이지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중재자가 될 수는 없다는 관점에 입각한다면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리아의 중재’ 관념이 중세로 접어들면서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상이었다.

또한, 가톨릭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가인 성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c.1224/5- 1274)는 모든 사람이 원죄로 잉태되었다고 믿었다. 그는 그리스도만이 은총이 충만하고 모든 은총이 그분에게서 흘러 나온다고 말한다.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서는 그리스도의 구원 은총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복되신 동정녀는 그러한 은총의 주인이신 그분 가장 가까이에 계시기에 은총의 충만함을 누리신다. 동정녀는 당신 자신 안에 모든 은총의 충만함을 받았고, 또, 그분을 낳으심으로써 은총의 충만함을 누리신다. 그리고 동정녀는 어떤 면에서 은총이 모두에게 내리게 한다.”³⁴⁾고 말한다. 여기에서 그는 마리아

32) Brian K. Reynolds, 215.

33) Hilda Graef, 186-187.

의 중재는 모두에게 직접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에 의존되어 있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³⁵⁾ 토마스 아퀴나스는 마리아의 중재 은총이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은 것임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중세의 신학자들은 마리아의 구원의 중재 가능성에 대해 고심했고 점차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게 되었다. 이렇듯, 성경에서부터 시작한 ‘마리아의 중재’ 개념은 중세를 거치면서 점차 확장되고 신학적으로 정립되어 갔다.

4. 근대 이후의 양상: 제 2차 바티칸 공의회가 이룬 조화와 균형

중세에 들어서 마리아를 인류의 중재자로 인정하기 시작한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근대 이후 ‘마리아의 중재’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발전시킨다. 무엇보다도 구원론의 관점에서 ‘마리아의 중재’ 개념은 그녀의 ‘원죄 없으신 잉태’ 교리를 통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근대의 가톨릭 신학자들은 동정녀의 최고 거룩함, 위엄, 모든 죄의 오염으로부터의 면제, 그리고 인류의 가장 사악한 적에 대한 그녀의 탁월한 승리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야기했다. 그리고 다양한 교회 학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1854년 12월 8일 교황 비오 9세는 그의 칙서, 「형언할 수 없는 하느님」(“*Ineffabilis Deus*”)에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³⁶⁾ 교리를 선포한다.

이 회칙에서 교황 비오 9세는 마리아가 하느님의 은총과 특권으로 모든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말한다.³⁷⁾ 성모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는 마리아에 대한 하느님의 독특한 사랑과 선택을 표현하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에 대한 마리아의 성숙한 참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다. 또한 그는,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중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극히 친밀하고 불가분의 관계를 지닌 거룩하신 동정 마리아에게서 인성을 취하셨다고 말했다.³⁸⁾

34) 신학대전 III, q. 27, a 5.ad. I. 83.

35) 조규만, 『마리아, 은총의 어머니』, 가톨릭대학교출판부, 1998, 256-257.

36) 이러한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 교리에 대하여, 사라 진 보스(Sarah Jane Boss)는 이 교리에 대한 논쟁의 역사는 그리스도교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것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 Sarah Jane Boss, “The development of the Doctrine of Mary’s Immaculate Conception” in *Mary The complete resource*, Edited by Sarah Jane Boss, (New York : Continuum, 2007), 207.

37) Pius IX, *Ineffabilis Deus* “The Immaculate Conception,” 1854.

‘마리아의 중재’ 관념은 이러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교리에 힘입어, 제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보다 명확하게 규정되기에 이른다. 제 2차 바티칸 공의회는 그리스도의 유일한 중개를 확인하였고, 이와 더불어 마리아와 가톨릭교회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의했다.

‘마리아의 중재’에 대한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논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모든 교부들은 교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개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시며 교회의 탁월한 일원이신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에 참여하신다는 데 동의했다. 공의회에 참여한 많은 신학자들은 하느님의 지혜와 선의에 따라 마리아를 모든 은총의 중재자로 공의회 문서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동시에 제 2차 바티칸 공의회는 ‘마리아의 중재’ 관념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했다. 이는 공의회 교부들이 ‘마리아의 중재’라는 관념이 『성경』에 직접 근거한 것이 아니며, 한 분이신 중개자(티모전 2장 5절) 그리스도와 모순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에 공의회 교부들은 마리아의 중재성이 개신교 신자와 같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방해가 되고 그리스도교 신앙의 분열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내용을 좀 더 수정하기로 한다. 결국 공의회 교부들은 마리아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해 ‘종속’이라는 단어를 추가했다. 따라서 ‘마리아의 중재’는 ‘구원의 유일한 원천인 중개자 그리스도에 대한 참여’로 표현되었다.³⁹⁾

둘째, 제 2차 바티칸 공의회는 마리아의 협력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인간 협력은 모든 중재의 유일한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개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마리아의 중재는 유일한 중개자이신 그리스도의 위엄과 능력을 손상시키거나 약화시키지 않는다. 마리아의 구원 능력은 “내적 필요”에서가 아니라 “신적 기쁨에서” 나온 것이다. 다시 말해, 마리아의 구원의 영향력은 하느님의 은총과 선택에서 나온 것이지 필요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즉, 마리아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넘치는 공로에서 흘러나오고 그분의 중재에 의지하며 전적으로 그것에 의존하며 그것으로부터 모든 능력을 이끌어 낸다.⁴⁰⁾

38) Pius IX, *Ineffabilis Deus* “The Immaculate Conception,” “interpreters of the Sacred Scripture,” 1854.

39) The Second Vatican Council, *Lumen Gentium*, chapter 8, n. 62.

셋째, 제 2차 바티칸 공의회는 마리아의 모성적 사명과 역할을 설명함으로써 마리아와 교회의 관계를 설정한다.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인류의 빛」(Lumen Gentium) 8장에서는 인류에 대한 마리아의 모성적 사명이 분명히 선포된다. 마리아는 모성 때문에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믿는 이들의 어머니가 되셨다. 마리아는 교회 안에서 신자들의 탄생에 협력함으로써 참으로 그리스도 신비체의 어머니가 되신다.⁴¹⁾ 따라서 마리아는 교회의 모델로서 제시된다. 그녀는 교회의 모델로서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하느님 백성을 섬기고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의 여정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에 충실히 협력하였다. 「인류의 빛」(Lumen Gentium)은 마리아의 모성적 중재가 신성한 모성의 은사와 역할을 통해 구세주이신 당신 아드님과 결합되고, 그분의 독특한 은총과 기능으로 복되신 동정녀 또한 교회와 친밀하게 결합되어 있기에 가능하다고 말한다.⁴²⁾

이처럼 제 2차 바티칸 공의회는 마리아의 중재 사상을 교회와 결합시켜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와 종속 관계 안에서 그녀가 구원의 협력자라는 것을 명확히 했다. 교회의 신비 안에서 주님의 어머니로서의 마리아의 위치와 그리스도 구원 사업의 협력자로서의 그녀의 중재 역할이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제 2차 바티칸 공의회는 마리아론과 그리스도론 사이에 충돌을 피하고 조화와 균형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

나가는 말

그리스도교 이천년 역사에서 마리아에 대한 신앙은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으며, 중재자로서의 마리아의 위상은 그 속에서 변화, 발전해왔다. 또한 본론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마리아의 중재’ 관념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어 왔다. 431년, 교회가 에페소 공의회에서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로 선포한 이후, 중세에 이르러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달래는 중재자로서 신자들의 마음에 깊이 자리 하게 되었다. 마침내 19세기가 되자, 마리아는 원죄 없이 잉태되신 어머니라는 교리가 선포되었다. 또한, 근대 이후, 교회는 성

40) Ibid., n. 60-62.

41) Ibid., n. 53.

42) Ibid., n. 63.

모 승천 교의를 통해 하늘과 땅 사이의 중재자로서의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구원을 위해 교회 안에서 현존하고 계심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마리아론의 이러한 역사적 전개에도 불구하고, 가톨릭교회 안에는 특별히 ‘마리아의 중재’라는 관념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시각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이러한 시각은 구원의 은총은 하늘과 땅의 유일한 중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그리스도론에 의거하고 있다.

그렇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제 2차 바티칸 공의회는 충돌을 피하는 데로 당당히 나아갔다. 이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는 마리아를 중재자로 인식하는 교회의 전통적 사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모성적 중재 사상을 발전시키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에 따르면, 마리아의 영적 모성은 수태고지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완성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에서 이루어졌다.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 닫혔던 구원의 문이 영적 모성을 간직한 채 하느님의 계획과 말씀에 순종하며 응답하신 마리아에 의해 다시 열린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 모성을 지닌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수난과 온전히 일치하여 세상에 사는 인류에게 그리스도의 은총을 전달하는 중재자로서의 사명을 계속하고 있다.⁴³⁾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이 같은 마리아론은 마리아에 대한 교회의 사상적 관심과 신앙 실천이 아직도 진행 중임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고찰한, 역사적으로 전개되고 근대 이후 제 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 정립된 가톨릭교회의 ‘마리아의 중재’ 관념을 정리하자면 대략 다음과 같다. 마리아에 대한 하느님의 선택은 유일무이한 사건이었기에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서 성령의 활동에 완전히 개방하고 그 신비의 종속적 공유자로서 중재자의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처음으로 믿었던 이”⁴⁴⁾이고, 신앙공동체의 모범이요, 교회의 첫 지체이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원형으로서 가톨릭 신자들의 어머니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마리아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신실한 지체들이 계속해서 태어나도록 구세주 그리스도와 밀접하게 연결되고 사랑으로 협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신자들이 모든 은총의 중재자이신 마리아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중재자로서의 마리아’의 위상은 교회의 역사적 결과물, 신앙의 결과물이라

43) John Paul II, *Redemptoris Mater*, n.23, 30.

44) 참조: 루카 2, 26-38.

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마리아의 중재’ 관념은 “성서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교부들로부터 전승으로 물려받은 신앙”⁴⁵⁾이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확증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이다. 또한, 마리아는 올바른 신앙의 길을 찾는 신앙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등대와 같은 존재라 말할 수 있다.

45) 조규만, 『마리아, 은총의 어머니』, 가톨릭대학교출판부, 1998, 397.

참고문헌

교회문헌

- 성경,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2005.
- Pius IX, *Ineffabilis Deus*, 1854.
- The Second Vatican Council, *Lumen Gentium*, 1964.
- _____, “Declaration on the Relationship of the Church to Non Christian Religions,” (*Nostra Aetate*). n. 1-5, 1965.
- John Paul II, *Redemptoris Mater*, 1987.
- Catechism of the Catholic Church, New York: An Image Book: Doubleday, 1995.
- Benedict XVI, “General Audience,” 16 January, 2013.
- Francis, “Mediator or intermediaries,” 9 December, 2016.

연구문헌

- Arinze, Francis, *Marian Veneration*, San Francisco: Ignatius Press, 2017.
- Aquinas, Thomas *Summa Theologiae*, Q 27, Article 6.
- Aquinas, Thomas *Summa Theologiae*, Q 83, Article 4.
- Bastero, Juan Luis, *Mary, Mother of the Redeemer*, A Mariology Textbook, Dublin: Four Courts Press, 2006.
- Boss, Sarah Jane, *Mary: The Complete Resource*, New York: Continuum, 2007.
- Brown, Raymond E. Karl P. Joseph, Donfried, A, John Reumann, Fitzmyer, Mary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Paulist Press, 1978.
- Gharib, Georges and others, eds., *Testi mariani del primo millennio*, III, Rome: Citta Nuova, 1988-1991.
- Gambero, Luigi, *Mary and The Fathers of The Church*, San Francisco: Ignatius Press, 1999.
- _____, *Mary in the Middle ages-The Blessed Virgin Mary in the Thought of Medieval Latin Theologians*, Thomas Buffer(tr.), San Francisco: Ignatius Press, 2000.
- Graef, Hilda. *Mary, a History of Doctrine and Devotion*, Indiana: Christian Classic & Norte Dame, 2009.

- Kim, Taehun “La Madre Di Gesu In Gv 2, 1-12 Uno Studio esegetico e teologico,” Pontificia Universita Gregoriana, 2014.
- Laurentin, Rene, Mary in Scripture, Liturgy, and the Catholic Tradition, New York: Paulist Press, 2014.
- Lee, Jeong Hun, A Study on Liturgical Honor of Mary and Saints I, Suwon: Suwon Catholic press, 2013.
- Maunder, Chris, “Mary in the New Testament and Apocrypha” in Mary The complete resource, New York: Continuum, 2007.
- Nachef, Antoine, Mary's Pope—John Paul II, Mary, and the Church since Vatican II, New York: Sheed & Ward press, 2000.
- Nichols, Aidan OP, There is no rose, The Mariology of the Catholic Church,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5.
- Pitre, Brant. Jesus and the Jewish Roots of Mary, New York: Image, 2018.
- Ratzinger Joseph, Mary: God's Yes to Man - Encyclical Redemptoris Mater, San Francisco: Ignatius Press, 1988.
- Reynolds, Brian K., Gateway to Heaven—Marian Doctrine and Devotion Image and Typology in the Patristic and Medieval Periods, Vol. 1, New York: New City Press, 2012.
- Schillebeeckx, Edward, Mary, Mother of the Redemption: The religious bases of the mystery of Mary, London and New York: Sheed and Ward, 1964.
- Schillebeeckx, Edward and Halkes, Catharina, Mary Yesterday, Today, Tomorrow, London: SCM Press, 1993.
- 조규만, 『마리아, 은총의 어머니』, 가톨릭대학교출판부, 1998.

역사적 전개 과정을 통해 바라본 ‘마리아의 중재’ 개념의 형성과 발전

지재구

마리아에 대한 중재 사상은 성경부터 시작하여 교부시대, 중세 근현대사를 거치면서 신자들의 신앙 속에 끊임없이 변화와 발전을 지속 해왔다. 마리아의 중재 사상에 대한 초기 교부들의 가르침은 431년, 교회가 에페소 공의회에서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로 선포하게 했다. 이러한 교회의 가르침은 그녀의 존재에 대한 인식에 변화를 주었다. 즉, 신앙인들은 그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자로 인식하고자 했다. 또한, 중세시대에 그리스도는 엄격한 심판자의 이미지를 지녔다면,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달래는 중재자로서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19세기 마리아의 원죄 없이 잉태되신 교리 선포와 20세기 성모 승천 교의 선포는 신자들에게 중재자로서의 마리아에 대한 신앙과 신심을 크게 성장하게 했다. 즉 하늘과 땅 사이의 중재자로서의 마리아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구원의 협력자로서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교회가 인정하는 사건이었다. 또한, 마리아는 이러한 중재 역할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의 협력자로서 현존하고 계신다.

주제어: 마리아, 성경, 은총의 중재자,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인류의 빛」(*Lumen Gentium*),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the idea of Mary's mediation is seen through the historical development process

Ji, Jae-Koo

The idea of Mary as a mediatrix has continued to change and develop in the faith of believers, starting from the Bible and going through the patristic era, medieval times, and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This prosperity and development have been proven through the teachings of many Church fathers and theologians in the history of the Catholic Church. The teachings of the early Church fathers on the idea of Mary's mediation led the Church to declare Mary the Mother of God at the Council of Ephesus in 431. These teachings changed the perception of her existence. That is, believers sought to recognize her as the mediatrix of Jesus Christ. This also affected their religious life. Also, in the Middle Ages, while Christ had the image of a strict judge, Mary was perceived as a mediatrix who appeased Christ's heart. The proclamation of the Immaculate Conception of Mary in the 19th century and the Assumption of the Virgin Mary in the 20th century led believers to grow significantly in their faith and devotion to Mary as a mediatrix. In other words, it was an event in which the Church recognized that Mary, as a mediatrix between heaven and earth, was carrying out her duties as a collaborator in the salvation of those who believe in Christ. In addition, Mary is a cooperator of salvation with Christ in the Church established by Christ for this mediating role.

Key words: Mary, Bible, Mediatrix of Grace, Second Vatican Council(*Lumen Gentium*), pope John Paul II

논문 투고일	2023년 10월 27일
논문 수정일	2023년 11월 30일
논문게재 확정일	2023년 11월 27일
